

세계 리더·민간경제외교관으로 큰 족적



조석래 前 효성 회장의
아름다운 퇴진 <하>

현장 의견 반영·각계와 대화 즐기는 '소통의 달인' 협력국가와 이해관계 조율...한미 FTA 타결 공헌 美 비자면제 체결·지재권 보호 규제 완화 등 수훈

조석래 전 회장은 효성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세계 리더로 동분서주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장(2007~2011년)은 물론 한·미재계회의 한국 위원장(2000~2009년)과 한·일경제협회장(2005~2014년)을 맡아 민간경제 외교관으로 세계를 누볐다.

조 전 회장은 세계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의 큰 어른으로 소임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교섭절차로서의 역할도 늘 강조했다. 재계에서 고(故) 정주영 현대 회장이 '왕회장'으로 불렸다면 조 전 회장은 '노(老) 회장'으로 통했다.

◇'할말하는' 재계 큰 어른·민간 외교관 역할=전경련 회장 시절 조 전 회장은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조 전 회장이 전경련 회장 역임 당시 국민들이 전경련의 존재와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자 그는 출입기자들을 불러모아 여론을 적극 수렴했다.

그는 각계단체 및 후배들과의 대화를

즐거웠고, 대화를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현장에 반영하고 정책에 수용했다. 효성이 최근 발간한 '내가 만난 그사람, 조석래'라는 기고문집에서도 그는 '소통의 달인'으로 평가받는다.

경제부 기자 시절 조 전 회장과 친분을 쌓은 김동섭 중앙방송(시골) 대표는 "조 회장은 끊임없이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으셨다. 대화를 즐겼고, 그 대화를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현장에 반영하고, 정책에 수용하는 등 활발한 쌍방향 소통을 몸소 보여줬다. 그동안 많은 재계 인사들을 만났지만 대화에 적극적인 기업 총수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격식을 싫어하는 성격이다. 평소 수행비서를 대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외 출장 때도 실무부서 직원이 동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혼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독서를 좋아하며 학구적이고 동시에 합리적이기도 하다.

조 전 회장이 중국 출장에서 귀국하는 길에 마중 나온 임원들이 가방을 들어주



조석래(맨 오른쪽) 전 효성 회장이 2007년 제20차 한미재계회의 사전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간 투자보장협정과 FTA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려 하자 "내 가방은 내가 들 수 있고 당신들이 할 일은 이 가방에 전략을 가득 채워주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성격을 잘 드러내는 일화 중 하나다.

◇봉사와 사회공헌 활동 후진 양성으로 경제 기여=그는 재계에선 민간 외교관으로 통했다. 조 전 회장은 미국 등 주요 협력국가와 재계·민간경제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특히 한국 경제계 수장으로 서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성공적으로 타결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2006년 미국과의 FTA 협상을 할 때는 FTA를 반대하는 양국의 정·재계 유력 인사들을 만나고 다니며 적극적으로 설득한 일화도 유명하다.

2007년부터 전경련 회장을 맡으면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때로는 정부와 각을 세우기도 했다. 은행권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며 대가로 적금 가입 등을 강제하던 '쥐기' 관행에 대해 전경련을 방만한 국회의원 앞에서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체결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규제 등 규제를 이끌어내는 등 민간 외교 차원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조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지만 후진 양성을 통해 경제에 기여한다.

효성 관계자는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봉사와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후진 양성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는 게 조 전 회장의 뜻"이라고 전했다.

◇집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29.94 (+3.90) 금리 (국고채 3년) 1.75% (0.00)
- ↑ 코스닥 671.53 (+7.51) ↓ 환율 (USD) 1120.60원 (-2.50)

광주·전남 무역수지 흑자 감소

수출보다 수입 증가폭 커 전년비 32% 감소 57억3100달러

올 상반기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지난해 동기대비 소폭 증가하고 수입은 대폭 늘어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 증가한 224억4400만 달러, 수입은 34.6% 늘어난 167억1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따라서 무역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1% 감소한 57억3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6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감소한 37억1600

만 달러, 수입은 31.0% 증가한 29억24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3% 감소한 7억9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5.5% 감소한 11억 5000만달러, 수입은 0.2% 증가한 5억28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6억2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25억6600만 달러, 수입은 40.5% 증가한 23억96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유·스퀘어' 고속터미널 고객만족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평가 8년 연속...11개 전 항목 최고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복합시설인 유·스퀘어가 '2017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 지수(KSQI)' 고속터미널 부문에서 고객이 가장 만족하는 기업 1위로 선정됐다. 유·스퀘어는 2010년 처음 고속버스터미널 부문이 신설된 후 8년 연속 서비스 품질지수 1위를 기록해 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발표하는 'KSQI'는 신분을 숨긴 조사원이 매출을 직접 방문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평가항목은 시설환경, 인사, 복장, 용모, 경쟁 태도, 친절성 등 11개 항목이며 유·스퀘어는 모든 서비스 환경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스퀘어는 본심물 센터를 운영하며 고객 편의를 돕고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

기 위해 24시간 전화 안내 서비스를 해왔다.

부패와 패밀리 레스토랑 등을 임점시켜 지역의 외식 문화를 선도하던 유·스퀘어는 2016년 전국의 맛집을 한곳에 모은 '라스 랍블라스'를 국내 최초로 오픈하며 새로운 맛의 세계를 선보이기도 했다.

'아름다운 예술시장'에서는 지역작가들이 각종 수공예품을 선보이고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을 정해 오케스트라, 버스킹 밴드 등 공연을 무료로 열며 터미널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유·스퀘어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스퀘어가 문화와 예술, 젊음이 함께 어울려진 도시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전 'KEPCO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

한국전력(사장 조원익)은 19일 오전 한전 본사에서 제5기 'KEPCO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123명의 'KEPCO 대학생 서포터즈'는 1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선발됐으며 올 11월까지 5개월간 전력서비스 전반 모니터링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한전의 서비스와 제도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소통메이커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성철 한전 영업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등 에너지산업계의 큰 변화

와 탈원전 등 새정부의 전력믹스 변화 속에서 한전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지 서포터즈 여러분이 바로 알고, 국민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들과 함께 하는 든든한 행복 에너지 기업'으로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

'초긴장' 기아차

노조 파업 결의·통상임금 소송 내달 결론...결과따라 파장

기아자동차가 노동조합 파업 결의와 함께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통상임금 소송 선고 결과에 따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결론이 8월 내 이뤄질 전망이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20일 통상임금과 관련된 체불임금 소송 4건에 대한 변론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고 8월 내 소송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항목의 수당이 과연 어느 선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2만5000여명이 넘는 원고마다 수당 항목이 달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등이 쟁점으로 전해졌다. 기아차를 둘러싼 통상임금 소송은 청구

금액만 7287억8600여만원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기아차가 파소할 경우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1조원 이상의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기아차 입장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회사경영에 엄청난 파장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과 함께 노조 파업이라는 상황도 맞았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기아차지부는 지난 17~18일 광명 소하리공장, 화성공장, 광주공장, 판매점비 등 5개 사업장 조합원 2만8240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해 72.1% 2만375명이 찬성,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 측이 즉각 파업 대신 8월 첫째 주로 예정된 휴가 기간 전에 사측과 임금 교섭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여지를 남겨 최악의 사태는 일단 피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대성기자bigkim@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반대" 김영록 광주세무사회장 1인시위

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장(민주당 광주시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은 지난 17일 산업은행 광주지점 앞을 시작으로 서울 청와대, 국회의사당 앞을 찾아가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광주지방세무사회 제공>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2중압박 단열방수 냉방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상 내열성 6년 무상 A/S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지재 추진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홈에치 패턴이달 그에서 만나다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명예홍보이사
탈런트 이영후

한국방수시험연구원(경기 493008-24호)에 의거한
방수성능시험 합격 제품!

5년 이상 불로 가열해도 물이 시뮬을 타고
번져 들어가지 않는 실용 동양상 한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의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나 잔덴디나와의 플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